

[제 2회 뮤지엄 SAN 디자인 공모전]

Q&A 자주하는 질문

Q1. 공모전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1983년생 이하(만 36세 이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팀원은 3인 이내이며,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젊은 건축도들을 위한 공모전으로 학생이 아닌 직장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추후 상금 수령에 따른 세금문제 등으로 소속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공모전 주제의 제한

규모/형식/기능 등을 공모전에서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뮤지엄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창작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왜 이렇게 연구되었는지, 기획의도를 통해 밝혀주세요..

Q3. 뮤지엄 외부 : 쉼터형 버스정류장(이하 버스쉼터)

외부 도면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지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오크밸리 셔틀버스와 원주 '시티투어 버스'(뮤지엄 도착 시 내리는 장소)가 해당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오크밸리 셔틀버스 운행시간(동절기) : http://www.oakvalley.co.kr/oak_new/location.asp#bus
원주 시티투어 버스 운행시간 : http://tourism.wonju.go.kr/user_sub.php?gid=www&mu_idx=32

Q4. 버스쉼터 사이트제한

없습니다.
현재 임시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류장을 철거 하고 시공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류장은 버스에서 내릴 때에만 이용되고 있으며, 버스를 탈 때는 건너편 진입로 입구에서 대기하였다가 버스를 타며 따로 정류장은 없습니다.

Q5. 버스쉼터 크기제한

없습니다.
현재 임시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류장은 기본적인 버스정류장의 규모이며 자유로운 공간과 규모를 제안해주세요. 단, 왜 이렇게 연구되었는지 의도를 분명히 밝혀주세요..

Q6. 버스쉼터 보행로

현재 사이트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추후 버스쉼터가 만들어지고 난 후, 횡단보도와 더불어 진입동선에 대한 고민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필수사항 아닙니다. 제안에 대한 부분은 지원자의 재량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옵션에 대한 우대혜택은 없습니다.

Q7. 검표장소인 티켓오피스(티켓부스)

내부 도면은 평면과 입면이 제공됩니다.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업체에 의뢰하여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버스쉘터의 경우 디자인 면에서 열려있는 것이라면, 티켓부스는 조금 더 안도 건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Q8. 티켓오피스의 필요성 / 검표방식

현재는 웰컴센터 티켓오피스에서 티켓을 구입한 후 외부공간을 지나 본관에서 검표를 합니다.

앞으로는 아트샵 앞 공간에서 1차 검표를 하고 본관에서 2차 검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력으로 검표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으며, 지원자들 또한 이 시스템으로 구상하시면 됩니다.

티켓검표와 관람안내를 위한 부스공간으로 위치는 웰컴센터와 야외(플라워가든입구)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Q9. 주제별 참여

각 주제별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개수에 대한 우대혜택은 없습니다.

Q10. 자료제공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지원서류, 공모내용 등)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 예정이었으나, 운영이 변경되어 폐쇄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자료 외에는 따로 제공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뮤지엄에 대한 소개는 첨부자료인 뮤지엄 STORY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뮤지엄 SAN 건축 도록(상세도면 없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Q11. 뮤지엄 입장

답사를 위한 무료입장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Q12. 문의

질의응답은 대표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화응대는 하지 않습니다. 유선상 안내의 경우 즉시 답변이 어려운 점과 안내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에 반드시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매일 확인을 하고 있어 즉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문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 따라 1~3일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뮤지엄 SAN 대표메일 : museum@hansol.com

자연은 인간의 상상력을 이용해 자신의 창조물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Nature uses human imagination to lift her work of creation to even higher levels.

지원자들의 생각을 늘 존중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2회 뮤지엄SAN 건축 디자인 공모전
Museum Awards : Architecture & Design

1. 공모전 개요
2. 참가 자격
3. 공모 주제
4. 필수 조건
5. 공모 일정
6. 작품 제출
7. 심사 및 시상
8. 공지 및 유의사항
9. 문의
10. 참고자료



1. 공모전 개요

- 건축(Space), 예술(Art), 자연(Nature)이 조화를 이루는 뮤지엄 SAN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건축 디자인

2. 참가 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83년생 이하 국민 누구나
- 개인 및 팀 참가 가능
- 팀원은 3인 이내 구성/ 전공상관 없음
- *건축 or 디자인 관련 전공자 1인 이상 포함할 것 (필수사항 x, 권고사항)

3. 공모 주제

1) 쉼터형 버스정류장

: 뮤지엄 SAN (Space / Art / Nature)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실용 건축물

2) 티켓오피스

: 안도의 건축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
뮤지엄 SAN (Space / Art / Nature)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실용 건축물

4. 필수 조건

- ① 외부 설치 : 지속 사용 가능한 건축물
 - 쉼터형 버스정류장 : 정류장기능, 뮤지엄 안내, 차양, 냉,난방 기능 및 기타
 - 티켓오피스 : 출입구 분리, 출구 티켓 검표(인력) 및 기타
- ② 대표 키워드 : 자연(빛, 물, 돌, 바람, 소리 등), 예술, 종이
- ③ 당선작은 실제 건축물로서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예정

5. 공모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공고	2019.01.04 (금)	※ 홈페이지 : www.museumsan.org
설명 / 질의응답 기간 자료공유	2019.01.04(금) ~2019.04.26(금)	※ 이메일 접수 : museum@hansol.com 17:00 한국시간 기준 까지
접수/ 작품 제출	2019.05.10 (금)	※ 마감 : 2019.05.10 (금) 24:00 한국시간 기준 ※ 이메일 접수 : museum@hansol.com
1차 서면심사 발표	2019.06.14 (금)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2019.09.06 (금)	1차 합격자 대상 /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
수상작 발표	2019.09.20 (금)	

※ 상기 일정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6. 작품 제출

6-1. 1차 작품 온라인 제출 (이메일 museum@hansol.com)

- ① 참가신청서 1부(서식1 참조), 신분증명서류 1부(재학/재직증명서, 여권 등) : 팀원 전체
- ② 컨셉 판넬 파일 : 아이디어를 표현한 그림, 사진, 설계, 스토리보드 등 자유로운 형태로 구성
A3 size (297mm x 420mm) 5장 이내, pdf파일, 해상도 200dpi 이상
- ③ 작품 설명서(서식2 참조) : 작품명, 제작 의도/컨셉, 활용방안 포함
A4 size 5장 이내, pdf파일

6-2. 2차 작품 제출 (1차 합격자 대상)

- ① 컨셉 판넬 : 5mm두께 폼포드에 부착, 도면 및 이미지파일 포함
A1 size (594mm x 841mm) 세로 1장
- ② 작품 설명서 : 1차 제출된 작품설명서로 대체 또는 수정/보완 가능
A4 size 5장 이내, pdf파일
- ③ 프리젠테이션 자료 : 10분 이내, 형식 자유

7. 심사 및 시상

7-1. 심사방법

- ① 1차 서면심사 (온라인 제출물)
- ②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1차 합격 대상)
- ③ 관련 전문인으로 심사위원 구성

7-2. 심사결과 발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개별통지

7-3. 시상내역(주제별)

1) 웰터형 버스정류장

당 선 (1팀) : 안도 건축사무소 방문 기회 마련, 상금 350만원, 뮤지엄산 연간멤버십, 상패

2) 티켓오피스

당 선 (1팀) : 안도 건축사무소 방문 기회 마련, 상금 350만원, 뮤지엄산 연간멤버십, 상패

8. 공지 및 유의사항

- 8-1.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이 없을 수 있으며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
- 8-2. 출품작의 모방, 표절 및 타 공모전의 중복 입상이 판단될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
- 8-3. 제출 작품과 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작품에 대한 권한은 뮤지엄 SAN과 함께 소유함.
뮤지엄 SAN은 선정작의 구현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합의 하에 수정 및 변형해서 사용 할 수 있음.
- 8-4. 수상작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8-5.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9. 문의 및 공유

※ 공식 메일 주소로 접수

1. 이름/소속/연락처./질문 내용 기재
2.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음 (소요 시 안내 메일 발송 함)
3. 관련 내용 및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 www.museumsan.org

-공식 문의 메일주소 : museum@hansol.com

[참고1] 뮤지엄 SAN의 이해 www.museumsan.org/

뮤지엄 SAN STORY

최용준(뮤지엄 SAN 학예실장)

< 목 차 >

1. 한솔문화재단
 2. 뮤지엄 SAN
 3. 건축
 4. 페이퍼 갤러리
 5. 청조 갤러리
 6. 제임스 터렐관
-

1. 한솔문화재단

재단법인 한솔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은 미술관 운영을 통한 공익문화사업으로 우리민족과 국가의 문화창달 및 모든 개인들이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1995년 3월 설립되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 1997년 한솔제지 전주 공장 부지 내에 한솔종이박물관을 설립하였고 그 후 서울 역삼동 한솔빌딩 내에 미술관 설립을 추진하여 전시장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IMF 사태로 백지화되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존하는 뮤지엄을 설립하겠다는 문화재단의 이인희 이사장 및 이사회의 뜻에 따라 2006년 뮤지엄 설계를 안도 타다오에게 의뢰하면서 뮤지엄 프로젝트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 후 뮤지엄은 2007년 실시설계, 2008년 착공, 2012년 준공하고 1년여 기간 동안 전시 및 제임스 터렐관 공사를 마무리 하여 2013년 5월 한솔뮤지엄으로 개관하였다. 첫해 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2014년 3월 뮤지엄 SAN으로 뮤지엄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뮤지엄 산>은 2013년 영국 Financial Times에서 '꿈의 미술관'이라는 극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00선'에 선정되었고 올해 2월에는 싱가포르 Artling이라는 잡지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4대 미술관'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 뮤지엄 SAN

뮤지엄 SAN의 SAN은 Space, Art, Nature의 영문 첫글자가 모여 이뤄진 이름으로 뮤지엄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뮤지엄 SAN은 종이를 근간으로 하여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단순히 보는 뮤지엄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누구나 즐기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뮤지엄이 되고자 한다.

뮤지엄의 컨셉은 Disconnect to Connect로 진정한 소통을 위한 단절의 공간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목표로 이를 위해 여유로운 Slow Museum으로, 디지털 기기보다는 종이를 비롯한 아날로그 감성으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뮤지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곳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 뮤지엄 SAN은 방문한 모든 관람객들에게 인문학적 감성과 자연과의 공감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종이에 물들이듯 천천히 전해드리고자 한다.

3. 건축

1) 안도 타다오 Ando Tadao 安藤忠雄 (b. 1941~, 오사카, 일본)

노출콘크리트의 미니멀한 건축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는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공업고등학교를 졸업 후 1962년부터 7년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였다. 노출콘크리트, 유리, 빛, 물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 그의 건축방식은 특히 건축물이 자연지형을 그대로 수용하며 자연과 건축물 그리고 고전적가치와 현대적 기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1976년 설계한 <스미요시 Sumiyoshi 의 연립 주택>으로 1979년 일본 건축학회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초기 자아성찰적이며 사색적인 건축작업이 후기 1980년대 이후에는 자연지형과 건축물이 통합된 형태의 미술관, 공공건물 등을 디자인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도쿄대 건축학과 교수와 예일대, 콜롬비아대, 하버드대 객원교수를 역임하였고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오사카의 빛의 교회, 홋카이도의 물의 교회, 나옴시마의 현대미술관, 이태리 베네통의 리서치센터, 미국 포스워스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2) 건축 컨셉

안도 타다오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장소로서

처음 부지를 보았을 때, 가늘고 길게 이어진 산 정상에 깎은 듯한, 아주 보기 드문 땅이었기에, 여기에 주위와는 동떨어진 별천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주입식 교육 속에서 활기를 잃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살아갈 힘’ -100살까지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양분- 을 흡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그저 조용한 상자 같은 미술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매우 적합한 부지였다.

서울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에 정말로 여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올까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부지가 갖고 있는 매력과, 지금까지 30년 이상 수집해온 미술 컬렉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인희 고문의 강렬한 열망에 마음이 움직여 설계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뮤지엄 SAN이 문을 여는 날을 맞게 되었다.

아무래도 나의 불안은 기우로 끝난 것 같다. 사회적인 요구와 고문님의 열망이 잘 조화되어, 개관 이래 끊임없이 많은 입장객들이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나는 건물 본관 뿐만 아니라, 부지 전체를 뮤지엄으로 만들고 싶었다. 어른과 아이 모두 여기에 와서 하루를 보내면 자연과 예술에 대한 감성이 풍부해져,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곳 말이다. 이런 시도는 과연 성공했을까?

뮤지엄 SAN은 이미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명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도전을 계속해 새로운 문화 자극을 세계에 계속 전승할 수 있는, 한국을, 아니 세계를 대표하는 뮤지엄이 되기를 바란다.

3) 건축 구성

뮤지엄은 전체길이 700m로 주변경관을 그대로 살려 웰컴센터,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스톤가든으로 이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산책로와 같은 동선으로 관람객들은 뮤지엄을 느긋하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

본관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BOX IN BOX 컨셉의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각형, 삼각형, 원형의 '無의 공간'이 4개 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뮤지엄은 세종류의 정원과 건축물 그리고 돌로 구성되어있다. 정원은 꽃, 물, 돌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으로 구성되어 뮤지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겨준다. 건축물은 티켓 오피스 역할을 하는 웰컴센터,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 본관 그리고 마지막 스톤가든 아래에 제임스 터렐관으로 구성되어있다. 뮤지엄 SAN은 3종류의 자연석을 특징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먼저 워터가든 아래에는 서산에서 가져온 해미석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건축물 외벽에 쓰인 파주석은 노출 콘크리트의 단조로움에 파격적인 자유로움과 성벽과 같은 웅장함을 부여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귀래면에서 가져온 귀래석 이 스톤가든을 이루면서 로컬컬러로 뮤지엄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대지 면적 : 71,172m², 건축 면적 : 5,445m², 연면적 : 11,580m², 길이 : 700m, 해발고도: 275m)

4. 페이퍼 갤러리

한솔종이박물관은 1997년 국내 최초 종이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국보와 보물 등 다수의 지정문화재와 그에 준하는 다양한 공예품 및 전적류를 수집 및 연구보존하고 있다. 2013년 5월 재개관하는 페이퍼 갤러리 Paper Gallery는 파피루스 온실을 시작으로 종이의 역사와 제작 기술의 발전을 설명한 P1 전시장, 종이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P2 전시장,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전적류를 통해 종이로 남겨진 선조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는 P3 전시장,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P4 전시장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징적 접점인 판화공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이박물관의 전시 및 유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은 종이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경험하며 종이의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파피루스 온실

박물관은 파피루스 온실로부터 시작된다. 안도 타다오의 대표 건축물 중 하나인 스미요시 주택에서 시작된 '중정中庭'의 개념이 도입된 야외 공간에 설치된 온실에서 관람객은 이집트를 비롯해 유럽에서 종이발명 이전의 기록매체로 활용되었고 paper의 어원이 된 파피루스 papyrus를 직접 관찰하게 된다.

2) Paper Gallery 1

박물관의 첫 번째 전시장인 P1 전시장은 종이를 알다(知)라는 주제로 종이 이전의 글쓰기 재료에서부터 종이의 탄생과 서양으로의 전파, 제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의 한지 제작 기술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유물과 시각자료로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동서양 종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간이다

3) Paper Gallery 2

종이를 품다(持)라는 주제로 꾸며진 P2 전시장은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종이 공예품을 감상 할 수 있으며 종이를 이용해 섬세하게 표현한 선조들의 미감과 종이의 실용적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Paper Gallery 3

뜻을 품다(志)라는 주제의 P3 전시장에서는 종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및 보물 등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종이로 남겨진 선조들의 사상과 정신을 살펴 봄으로서 의미 전달매체로서의 종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5) Paper Gallery 4

P4 전시장에는 종이와 문자 그리고 관람객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체험작품 The Breeze가 설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독일의 ART+COM이라는 설치예술그룹의 작품으로서 물결치는 종이 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물방울이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뭘세'라는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로 서서히 형상화되는 과정을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설치하였다.

6) 판화공방

종이박물관과 미술관이 공존하는 뮤지엄 SAN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판화공방이다. 판화공방에서 관람객들은 판화작가의 판화제작 과정을 지켜보며 판화와 제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람객들은 공방과 산뜰리에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 및 상설체험에 직접 참여하여 오감으로 종이와 판화를 느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청조 갤러리

1) 소장품

뮤지엄 SAN의 청조갤러리Cheong-Jo Gallery는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회화 작품들과 종이를 매체로 하는 판화, 드로잉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전통 회화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서양화 기법을 차용하여 새로운 동양화 양식을 이끌어 나간 김기창, 장우성, 서세옥, 이응노의 작품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회화 기법을 체득하여 한국적 모티브와 미를 추구했던 장욱진, 박수근, 이중섭, 도상봉, 이쾌대 등의 작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이우환, 박서보, 김환기, 백남준 등 동시대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 미술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작가들의 대표작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황규백, 박래현, 오윤, 정규 등 한국을 대표하는 판화작가들의 작품과 박고석, 박영선의 드로잉들이 집중적으로 수집되어 있어 뮤지엄 SAN의 청조갤러리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산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2) 청조靑照

청조는 푸름 靑에 비출 照로 이인희 이사장의 호로 청조갤러리의 컬렉션은 이사장이 평생 수집한 작품들로 미술품을 수집할 초기에는 미술관 건립보다는 개인적인 취미로 그림을 감상하고 구입하였던 중 신라호텔을 경영하게 되었고 호텔에 필요한 작품을 본격적으로 구입하게 되면서 미술품에 대한 이해와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 후 폭 넓은 미술품 컬렉션을 하면서 그녀는 미술품을 개인의 전유물로만 두기보다는 다 같이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에 미술품을 개인의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모 기업인 한솔제지와 관련 종이 유물과 예술적 가치는 높으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아 거래가 많지 않던 판화 및 드로잉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서양화, 한국화 등 다양한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6. 제임스 터렐관

1) 제임스 터렐 James Turrell (b. 1943~ , 캘리포니아, 미국)

제임스 터렐은 미국 파사데나 출신으로 빛과 공간의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회화와 조각 등 기존의 조형 예술 분야에서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던 '빛'과 '공간'을 작품의 주 매체로 끌어올려 라이팅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작가이며 이 빛과 공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명상과 사색의 공간을

제공한다.

작가는 4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뉴욕의 구겐하임, LACMA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그의 작품들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미술로 인정받고 있다

2) Skyspace, 2013

1975년 「Skyspace I」이라는 작품명으로 처음 소개된 스카이스페이스는 터렐의 예술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자 종교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작가의 종교는 웨이커교인데 이것의 정식 명칭은 프렌드파이다. 내면의 빛을 받아 구원을 찾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조지폭스의 명상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들은 기존 교회가 지닌 형식이 없이도 하느님을 내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면의 빛을 중시한다. 특히 나만의 명상을 할 수 있는 예배장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돔 형태의 천장, 하늘을 향해 나있는 창, 시시각각 변화하는 구름과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며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스페이스디비전SpaceDivision은 공간의 확장과 그 경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겪어보지 못한 시각적 경험을 하는 작품으로 뮤지엄SAN의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설치된 작품이다. 작가의 작품 중 최초로 SkySpace와 Space Division이 한 공간 안에 설치되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작품이 되었다. 지난 해 뉴욕의 구겐하임 Guggenheim미술관의 대표작품이었던 로툰다Rotunda 계단의 아텐 레인Aten Reign과 동일한 컨셉의 작품이다.

3) Horizon Room, 2013

관람객들은 이 공간에 들어서면 하늘을 향해 뿔려있는 사각 창과 그 아래 피라미드 형태로 배열된 계단을 마주하게 된다. 계단을 형상화한 듯한 계단을 올라가는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관람객들은 사각의 창 뒤에 대자연이 펼쳐져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빛과 공간 그리고 체험자의 행위가 어우러진 이러한 형태의 작품은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작가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4) Ganzfeld, 2013

간츠펠트는 “전체야全體野”라는 뜻의 독일어로 “윤곽이 없는 시야”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이 작품은 순환적으로 변화하는 빛으로 가득 찬 공간 속으로 관람객들이 걸어 들어가 그 안에서 경계가 없는 공간을 경험하고 사색하는 공간이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해 관람객들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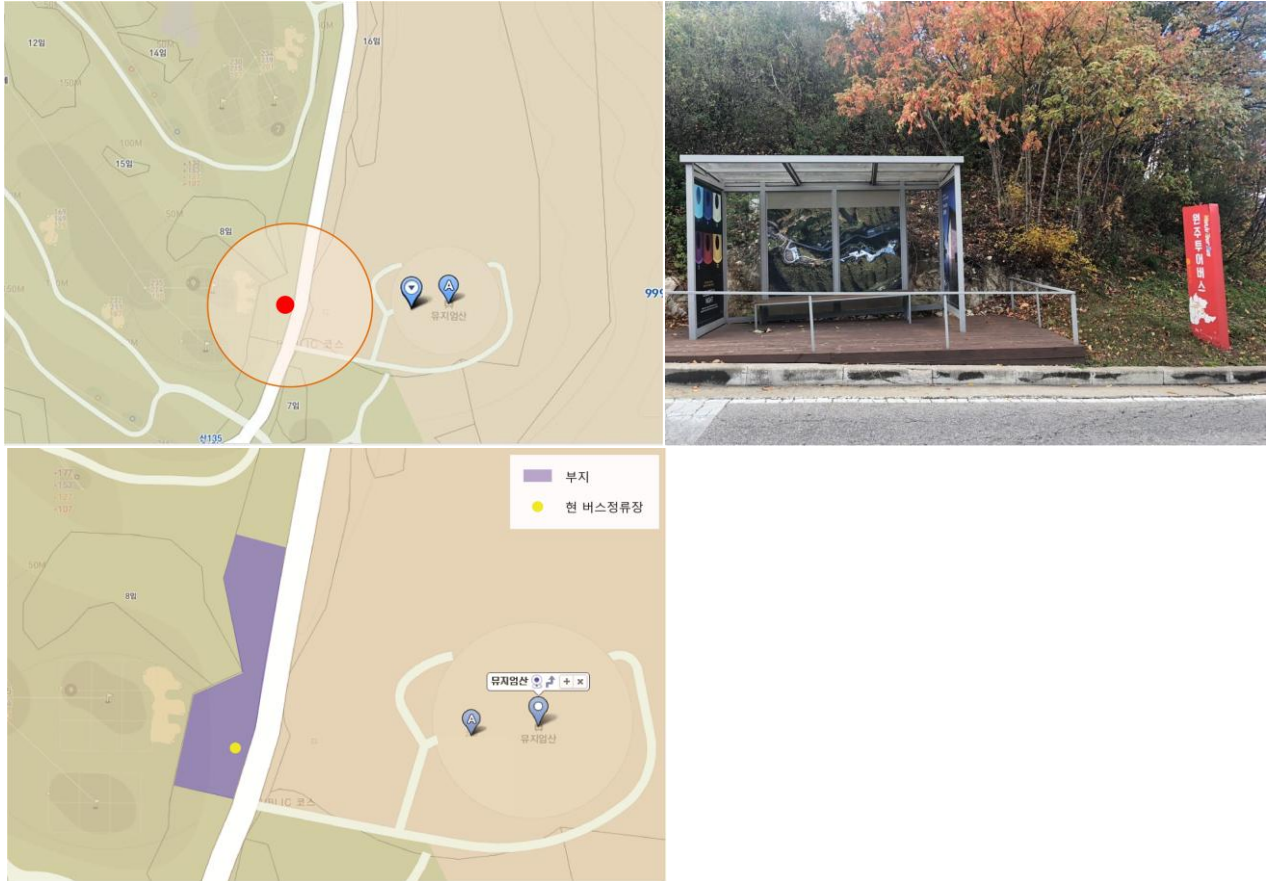
5) Wedgework, 2013

웨지워크는 작가의 초기 작품(60년대 말 ~ 70년대 초)중의 하나로 Shallow space construction 시리즈에서 특히 ‘공간’의 조작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명의 빛으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위에 투명한 빛의 장막이라는 ‘환영’을 만들어 내어 ‘실재’와 ‘시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대상이 인식되는 ‘지각’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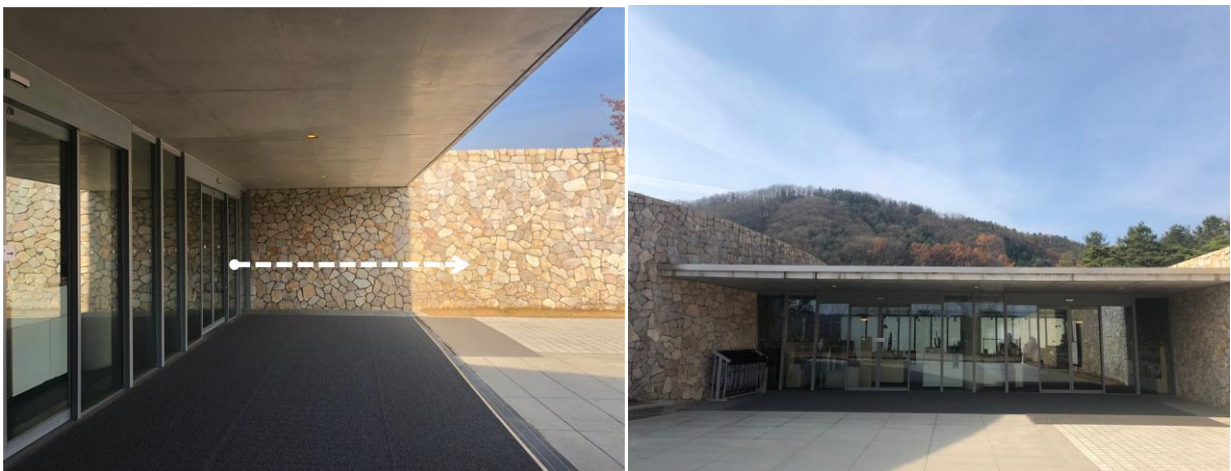
[참고2] 현장 사진

1. 쉼터형 버스정류장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설치 예정



2. 티켓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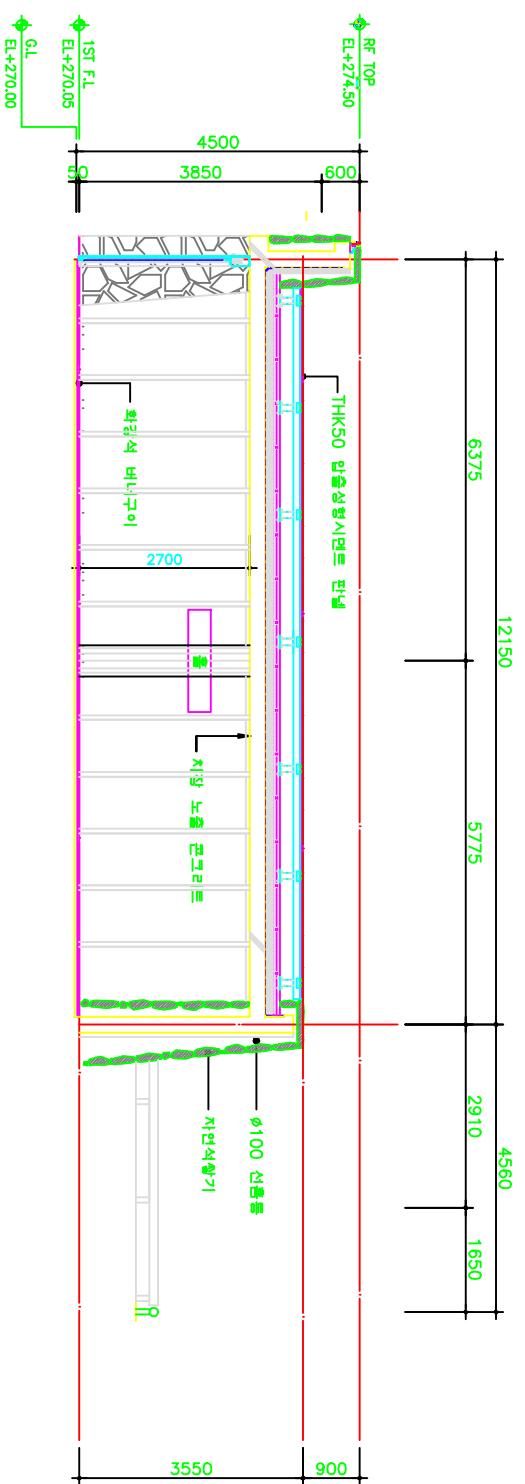


창에서부터 처마까지(직사각형의 큐브공간)

플라워가든 진입 전 앞쪽 비워진 공간은 대상부지가 아닙니다.

* 도면은 수치확인용 pdf 파일이며, 저작권의 이유로 이 외 제공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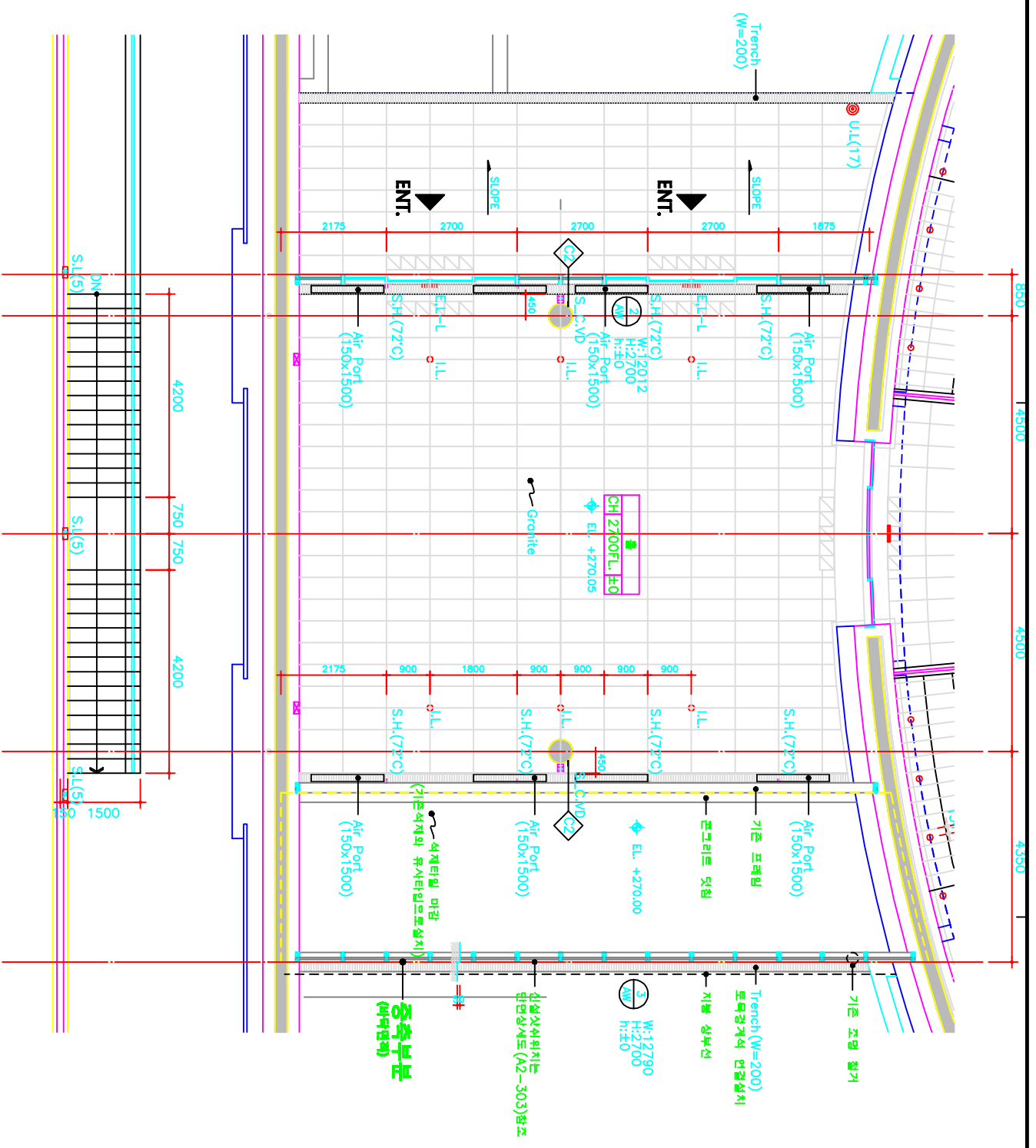
(티켓오피스 공간의 평면과 입면 첨부)



1
 인면도
 SCALE A1:1/60, A3: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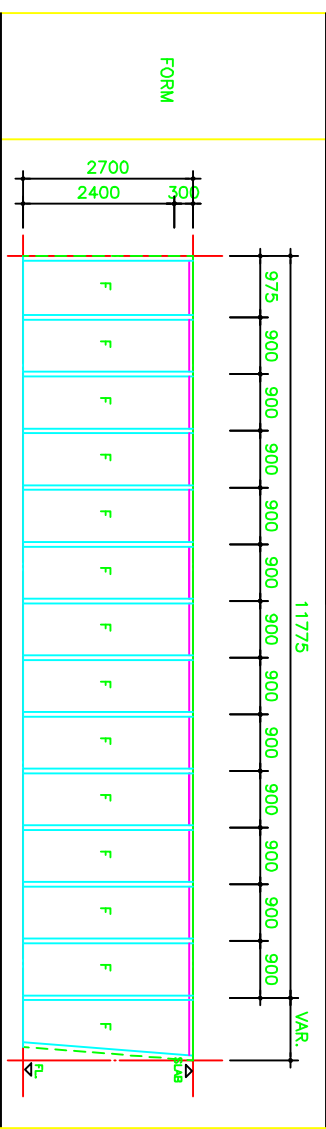
NOTE

CLIENT	Hansol		DATE	SCALE	DRAWN BY	CHECKED BY	DRAWING NO.
	PROJECT TITLE	SHEET TITLE					



2 1층 부분 평면 상세도(변경후)
SCALE A31/60, A31/120

3 알루미늄 고정창
SCALE A31/60, A31/120



NUMBER	3	알루미늄 고정창
FRAME	Thk1.6 알루미늄 부러림	
HARDWARE	적외차 일식	
GLASS	Thk24 로이 텍스 유리 (일면강화)	
FINISH	블스수지 코팅	

3 창호 일람표
SCALE A31/60, A31/120

NOTE

CLIENT	Hansol			DATE	SCALE	A31/60 A31/120	DRAWN BY	CHECKED BY	DRAWING NO.
PROJECT TITLE				SHEET TITLE				APPROVED BY	APPROVED BY